

# 전북의 풍미가 담긴 '전주비빔밥' 즐기다

## 내일부터 23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전주비빔밥축제 개최

너른 풍아를 비롯해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전라북도도 제철·특산물재료가 풍부하다. 이렇듯 도처에 식재료가 지천이다 보니 이곳 음식은 종류가 다양한 뿐만 아니라 맛도 진미다. 이런 소담한 음식을 수시로 보고 먹다 보면 없던 오감도 생겨서 음식 만드는 일에 손방인 사람도 자연스레 한상차림은 그까지 것이 되고 미는 게 이 지역 음식의 맛과 멋이다. 이 지역의 무수한 음식들 중 백미는 비빔밥이 아닐는지. 고슬고슬한 밥에 콩나물·황포묵·쇠고기 육회(또는 볶음)·달걀·고추장·참기름 그리고 계절에 따라 표고버섯·송이버섯·고사리·숙주·애호박 볶음·당근채가 곁들여진 유기릇 속 비빔밥은 색깔로나 영양학적으로나 시선을 강탈한다. 이와 함께 비빔밥에 들어가는 나물에는 다들고·씻고·데치고·무치는 조리 과정이 깃들어서 비빔밥의 가치를

더한다. 이런 풍미를 한 그릇 맛볼 수 있는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린다.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2016 전주비빔밥축제를 개최한다. 전주는 '맛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과 문화체험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오감만족축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련하는 시민대중축제, 관광객들에게 맛의 고장 전주의 매력을 공감시키는 문화관광 축제를 지향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23일 12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광장에서 열리는 '모여라 비빔밥'과 20~23일 11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비빔전설', 22일 1시부터 팔달로 풍남문광장 앞에서 진행되는 '33동 비빔밥' 등이 있다. 3인 이상 가족과 친구, 단체가 팀을 이뤄 참가하는 모여라 비빔밥은 참가단체

만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비빔밥을 만들어 솜씨를 뽐내고 참가자와 관객들이 비빔밥을 통해 하나가 되는 퍼포먼스다. 또 비빔전설은 비빔밥의 유래로 손꼽히는 농번기에 들밭으로 된장비빔밥을 먹었다는 농번기설과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주먹비빔밥이 기원이라는 동학농민설, 제사 후 음복음식을 비빔 나물비빔밥이 기원이라는 제사음복설, 왕이 하사하는 골동반 비빔수라가 기원이라는 궁중음식설 등 비빔밥의 기원에 대해 각각 상황극 속으로 들어가 코스별로 맛보는 세트 체험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비빔밥을 맛보는 동시에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의 기원과 역사도 재미있게 담아내 주목을 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 33개동 주민들이 다양한 비빔밥을 준비해 관광객과 함께 나눠먹는 250m의 대형비빔퍼포먼스가 올해 축제에서는 2017 U-20월드컵 성공개회를 기원하며 추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비빔밥축제 포스터

이외에도 전국 요리학과 학생과 전문가 등 900여명이 비빔밥의 재료인 전주 지역 특산물과 식재료를 활용해 다채로운 요리의 장을 제공하는 전국요리경연대회 향연도 펼쳐진다. /정해은 기자

## 완주예술제, 둔산공원에서 22일 개최

지난해 출범한 완주예술제가 참신한 내용과 신명나는 프로그램으로 완주군민에게 다가간다. (사)한국예총 완주지회(이하 완주예총)가 주최하고 완주군이 후원하는 제2회 완주예술제가 '문화 예술의 도시 완주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연예, 음악 국악, 연극 등 4개 협회의 공연예술과 문인협회·사진작가협회의 회원작품전 전시로 완주예술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에 펼쳐지는 개막공연은 연예예술인협회의 빅밴드로 시작해 음악협회의 '완주군어린이 합창단'과 '히미고 스앙상블'의 중창 및 국악협회가 준비한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코믹 차력의 버라이어티쇼, 발랄살벌, 동당에 차려 단'을 준비한 연극협회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특색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예총 국총회 회장은 "완주예총은 역사는 짧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군민들에게 신바람 나고 참신한 예술의 경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이번 예술제에 완주군민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원주=이중복기자

## 한국민속예술축제 폐막작 '도리화 귀경가세'

고창 대표 공연 버라이어티 감성음악 '도리화귀경가세'(연출 남기성)가 지난 16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폐막작으로 초청되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각 지역의 고유 향토민속예술을 발굴, 재연하고 이를 보존 계승하기 위해 매년 펼쳐지는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창작 연희 작품을 폐막작으로 선보이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리화 귀경가세'의 남기성 연출은 '도리화 귀경가세'는 고창민의 이야기를 고창의 대표적 민속 예술 고창 농악(전북 무형문화재 제7-6호)의 단상굿 문굿 판굿 마당놀이, 개인놀이와 판소리, 기악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로 풀어낸 하나의 완성된 창작 연희 작품"이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배경으로 고창의 문화예술인과 외부 전문가가 결합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생력을 갖춘 작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리화 귀경가세' 제작한 이명훈 고창농악보존회장은 "민속예술 최대 축제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리화 귀경가세'가 폐막작으로 초청되어 전국에서 모인 민속예술인들과 축제를 찾은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 중국 강소성 문화청 교류공연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가 주관하는 제18회 중국 강소성 문화청 교류공연 '배력적인 강소'가 19일 오후 7시 전주 유진문화공간과 21일 오후 7시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화인시 예술단의 무대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예술단 수석도 단장과 출연진을 포함하여 23명이 방문하여 12작품을 선보인다. 이들 공연 프로그램 중 기극 <사랑의 속명>은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제곡으로 이 드라마 속 문화상품들은 중국인들에게 회자되며 많은 관심과 화제를 낳았다. 주은래 개국 총리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화인시는 그 동안 전라북도와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공연 행사를 개최해 왔다. (사)한국연극협회전북지회 정두영 회장은 "전주와 고창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중국예술의 진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며 "이번 공연으로 양 도·성이 더욱 돈독한 우정과 상호 협력하는 자제를 견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연은 무료이며, 문의는 277-7440. /정해은 기자

##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 들어보세요"

##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 정호승 시인 초청 강연

군산시 새만금아카데미는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정호승 시인을 초청,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란 주제로 명사 무료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 정 시인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용기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이정표 같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정호승 시인은 경상남도 하동군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 대학원 졸업 후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되며 문단에 등단했으며, 특유의 통찰력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시적비유 묘사로 많은 문학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정 시인은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시인이다. 대표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별들은 따뜻하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와 산문집으로는 '내 인생에 힘이 되어 준 한바탕',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등이 있으며, 소설사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진성봉 인제양성교장은 "인생 100세 시" /군산=문정곤기자



정호승 시인의 무료특강 포스터

대를 맞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식 습득과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만금아카데미가 학습의 장을 넘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인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아카데미 다음 강좌는 이계호 교수를 초청해 '태초막거리'라는 주제로 11월 16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문정곤기자

## 한국민속예술축제 성황리 종료

34개 단체 경연 2000여명 참가

국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유서 깊은 축제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본보 10월 17일자 5면>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주최하고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졌다. 올해는 전국 시·도 총 34개 단체 2천여 명이 참가했다. 경연을 통해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는 인천광역시 대표로 출전한 덕신고등학교 팀의 '강화용무래질소리'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는 전라북도 전주기잡놀이보존회의 '전주기잡놀이'가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받은 단체에는 대통령상과 함께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대상을 받은 '전주기잡놀이'는 전라북도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의 여러 마을에서 농기를 가지고 벌이던 민속놀이로 용기놀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 무렵까지 성행하였으나 이후 간헐적으로 1956년까지 전승이 이루어

지다가 중단되었다. 1974년 풍남제 행사 때 다시 재연되어 현재 매년 정월대보름과 백중일에 기잡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기잡놀이는 마을회마을을 통해 결정되며 이웃마을의 손님잡대, 판굿 용기어달리기 용기놀이, 용기부딪치기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네 개 마을의 주민과 풍물패가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굿판인 함굿으로 마무리 된다.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3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본격적인 축제 일정 전부터 전주 곳곳을 방문해 팔도민요, 판 굿등을 선보이며 경연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내년 제 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는 경상남도로 지정됐다.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일제강점기의 문화 탄압과 6·25전쟁으로 인해 사라져간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1958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로 시작했다. 1994년부터는 청소년들에 대한 민속 예술 전승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함께 개최해 오고 있다. /정해은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0월 18일>

**▷쥐띠**  
46년생: 여성으로 인해 인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6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72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니 미리 대비하라.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다.

**▷소띠**  
49년생: 금전운이 좋지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라.  
61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73년생: 동기간과의 협동으로 해결된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85년생: 모진 말속에 해답이 숨겨져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 앞으로 나가지 말라.  
62년생: 기쁨에 시달린다. 단비를 만난 격. 예기치 않은 상황 반전이 생긴다.  
74년생: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는 급격히 위험을 삼가라.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

**▷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함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한다.

**▷뱀띠**  
5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해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몸이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라.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

**▷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된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결이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행동하고 즐기니 망설이지 마라.

**▷원숭이띠**  
55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원령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라.  
92년생: 지나친 과단은 주위 사람들의 문제를 이기하니 조심하라.

**▷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들다.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해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수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

**▷개띠**  
43년생: 상황을 잘 살펴서 경각민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5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는다.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뒤로 물러사라.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는 일이 풀리지 않을 운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라.